

카드 잘 쓰면 추석선물 반값에 산다



카드업계 추석맞이 이벤트...광주은행·롯데·현대·BC 등 제휴 매장서 상품 구입시 최대 50% 할인·50만원 상품권

카드업계가 추석을 앞두고 다양한 할인 행사에 돌입한다. 명절을 맞아 친척과 지인들을 위한 선물을 구입하거나 여행을 떠날 때 최대한 카드혜택을 활용하면 가계경제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은행 KJ카드는 13일부터 오는 26일까지 롯데마트(온라인몰 가능)와 롯데슈퍼에서 추석선물세트를 구매할 경우 최대 40% 할인해주거나 금액대별 5%, 최대 50만원의 상품권을 증정한다.

이마트에서는 25일까지 선물세트 구매시 최대 30% 할인해주고 역시 금액대별 5% 상품권을 증정한다. 흥플러스 매장(온라인몰 제외)의 경우 26일까지 선물세트를 구매하면 최대 40% 할인 또는 5% 상당의 상품권을 증정한다. 행사기간 중 롯데마트, 흥플러스, 롯데슈퍼, 이마트에브리

데이 등 매장에서 2-5개월 무이자할부 이벤트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신한카드 역시 오는 16일까지 흥플러스에서 5만원 이상 결제 시 매장과 온라인몰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할인권 쿠폰을 증정, 25일까지 오프라인매장에서 선물세트를 사면 최대 30% 할인혜택과 구매금액별로 상품권을 제공한다. 온라인몰에서는 26일까지 최대 20% 할인한다.

이마트에서는 13일부터 24일까지 신선·가공·생활 관련 선물세트를 구입하면 최대 30% 할인혜택 또는 구매금액별 상품권, 롯데마트에서는 13일부터 26일까지 추석선물세트를 사면 최대 40% 할인 또는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삼성카드는 13~24일 이마트에서 추석선물세트를 사면 전세계 상품권과 할인 증

원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흥플러스에서는 13~25일 추석 선물세트를 구매하면 흥플러스 상품권 또는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BC카드는 이마트, 흥플러스, 롯데마트, 현대백화점 등 대형 할인점과 백화점에서 추석 행사상품을 결제하면 최대 50%를 즉시 할인해주거나 구매금액별 상품권 혜택을 제공한다. 쿠팡,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에서는 최대 20% 할인 쿠폰 또는 구매금액별 기프트카드를 증정, CJ오쇼핑, GS SHOP(SHOP) 등 홈쇼핑에서는 최대 7% 청구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롯데카드는 26일까지 롯데마트에서 30만원 이상 추석 선물세트를 구매하면 최대 30% 할인이나 구매금액의 5%를 롯데상품권(최대 50만원)으로 돌려준다. 롯데백화점에서는 22일까지 한우 선물세트를 롯데카드로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마트는 24일까지, 흥플러스에서는 26일까지 추석 선물세트 30만원 이상

구매시 최대 30% 할인 또는 구매금액의 5%의 상품권(최대 50만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현대카드와 BC카드의 혜택도 눈여겨볼 만하다.

현대카드는 다음달 31일까지 호텔 예약 사이트 '아고다'(Agoda) 행사전용 홈페이지에서 숙박을 예약하면 최대 10% 할인혜택을 제공, '렌탈카스닷컴'에서 결제하면 차량 예약요금의 5%를 할인해준다. 현대카드 플래티넘급 이상을 소지한 고객은 미국 뉴욕 현대미술관, 영국 런던 테이트모던, 테이트 브리튼, 일본 도쿄 모리미술관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BC카드는 해외여행 고객을 대상으로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 다음달 31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응모하고 해외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5만원 이상 결제하면 5000원의 캐시백을 제공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282.92 (-0.28)	↓ 금리(국고채 3년) 1.89 (-0.03)
↑ 코스닥 826.33 (+6.10)	↑ 환율(USD) 1128.60 (+3.30)

'500명 채용' 효성 19일 전남대 설명회

20일까지 27개 대학 순회

효성이 올해 하반기 그룹 신입사원 채용을 앞두고 전남대를 비롯, 전국 주요 대학을 찾아 채용 설명회를 연다.

효성은 오는 19일 오후 3시부터 전남대 도서관 별관 지하 1층 취업강의실(2)에서 채용 설명회를 연다.

올 하반기 500명 규모의 신입사원 채용을 앞두고 마련된 이번 설명회는 지난 3일 한국외대를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전국 27개 대학을 돌며 진행된다.

효성은 전남대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지주사 전환 후 분할된 4개 사업회사에 대한 설명과 면접 전형 등 취업 준비생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효성의 올해 신입사원 채용대상은 내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기졸업자로, 학점·외국어·연령 등에 별도의 자격 제한은 두지 않는다. 입사지원서는 오는 27일까지 그룹 채용사이트를 통해 접수하면 되고 최종 합격자는 12월 초에 발표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



한전, 담양에 20호 햇살행복 발전소 준공

사회적기업 '세아푸드'...다음달까지 29호 추가 건설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은 12일 전남 담양군에 위치한 사회적기업(주)세아푸드에서 '제20호 햇살행복 발전소 준공식(사진)'을 열었다.

준공식에는 김성운 한전 상생발전본부장, 김형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우중본 한국에너지재단 사무총장을 비롯한 80여 명이 참석했다.

'햇살행복 발전소 지원'은 전국 농어촌의 협동조합,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등에 태양광 발전소를 무상으로 지어주고, 여기서 나온 전력판매수익금을 일차리 창출과 지역공동체 복지 향상에 사용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한전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에너지재단과 지난해 12월 업무 협약을 맺고, 지원 대상 선정부터 태양광 발전설비 준공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소는 지난해 19호까지 준공되었으며, 올해는 제20호 세아푸드를 시작으로 10월까지 누적 49호를 지을 예정이다.

발전량은 총 2895kW 규모로, 매년 약 7억5000만원의 전력판매수익을 올리고 관련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국민연금 개선 토론회

내달 5일 5·18기념문화센터

국민연금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는 다음달 5일 광주시 서구 지평동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국민연금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연다.

희망자는 오는 19일까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로 참가 신청을 하면 된다.

국민연금의 경우 최근 제 4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결과와 제도개선안이 발표된 뒤 기금 고갈에 따른 불안감이 커지면서 불신과 오해를 해소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는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부터 연금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과 기금투자 수익의 합을 초과하는 수치 적자가 발생하고, 2057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또 오는 30일까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내 '연금의 온도' 사이트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국세청 소통 세정

김형환 청장 여수상 의서 상공인 간담회



김형환 광주지방국세청장(왼쪽)이 지난 11일 여수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들의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한 이후 떡을 구입하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 제공>

열린 국세행정을 표방하고 있는 김형환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취임 이후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김형환 청장은 지난 11일 여수상공회의소(회장 박용하) 대회의실에서 여수상의 초청, 상공인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여수 상공인들에게 국세청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설명하고 기업 경영에 유익한 세정 정보 등을 제공해 세정 방

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여수지역 기업체 대표와 임원 등 40여명이 참석했으며 기업현장의 세정관련 애로 및 건의 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여수지역 상공인들은 가업상속공제제도와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완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강화 필요성,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등에 대해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날 간담회에 함께 한 광주지방국

세청 국·과장의 상세한 답변과 김 청장의 부연 설명으로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김형환 광주지방국세청은 "세금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맞춤형 납세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제공하고 국민중심, 납세자 중심의 미래지향적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청장은 간담회가 끝나고 여수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최재호 기자 lion@

광주세관 추석 앞 수출입업체 통관 지원

10~26일 특별지원반 운영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추석을 맞아 수출입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0~26일까지 '특별통관지원반'을 편성에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특별통관지원반기간에는 세수용품 등 농수산물과 긴급한 수출용 원자재의 원

할한 수입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공휴일, 야간에도 통관이 가능하도록 24시간 상시 통관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수출물품 미선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토록 하는 등 수출입 기업을 최대한 지원한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100년 신문 향한 정통지

광주일보

창설 66주년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무덤이 필요 없는 자연장

無덤

봄 햇살처럼 아낌없이 베풀었던 당신은 봉안시설과 무덤보다는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이곳이 더 어울립니다.

후손에게 선물을, 이제는 자연장·수목장

장지까지 광주, 목포에서 30분거리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례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례문화입니다.

아름수목장 자연장·수목장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8-3(4층)
☎(062) 412-2800